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& PREVENTION		보 도 자 료 '15년 11월 17일(화) 조간		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
배 포 일	11월 16일 / (총9매)	담당부서	건강영양조사과	
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	과 장	오 경 원	전 화	043-719-7460
	담 당 자	김 윤 정, 최 선 혜		043-719-7505, 7463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	과 장	성 창 현	전 화	044-202-2820
	담 당 자	김 유 미		044-202-2822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	과 장	조 명 연	전 화	044-203-6877
	담 당 자	정 희 권, 주 상 철		044-203-6547, 6548

청소년 흡연을 10년내 최저

-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5년 결과 발표 -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양병국)와 교육부(장관 황우여)는 청소년(중1~고3)의 흡연, 음주, 신체활동, 식생활 등에 대한 제11차(2015년)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.

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17개 시·도의 800개 중·고등학교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, 2015년 조사는 6-7월에 실시하여, 68,043명이 참여

□ 청소년(중1~고3) 흡연율*

* 청소년 흡연율은 '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'로, 성인 흡연율(평생 담배 5갑(100개비)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)과 지표정의가 다르므로 유의

- '15년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 흡연하는 남학생은 10명중 1명(11.9%)이며, 전년 대비 2.1%p 감소('14년 14.0%)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, 전년 대비 15.0%의 감소율을 보였다.
- 여학생은 3.2%가 흡연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.8%p가 감소('14년 4.0%)하였고, 감소율은 20.0%이었다.

-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감소율이 더 커서, 나이가 어릴수록 감소율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.
 - 남자 중학생의 경우 '14년 6.8%에서 '15년 4.8%로 2.0%p 감소하여 29.4%의 감소율을 보였다.
 -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'14년 20.8%에서 18.3%로 2.5%p 감소하여, 12.0%의 감소율을 보였다.
 - 이는 '15년 담뭍값 인상, 금연교육 강화 등 정책 강화와 사회적 인식변화 등이 청소년 흡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.
 -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(Health Plan 2020, '11년 수립)상 2020년까지 남학생 흡연율을 12% 수준까지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, 보건복지부는 향후 목표를 재설정할 계획이다.
- * 정부 중·고 남학생 흡연율 목표 : '11년 17.2% → '20년 12.0% ('11년 대비 30% 감소)
 * WHO의 만성질환예방관리정책 목표 : 현재 흡연율의 30% 감소

< 현재흡연율 추이 >

단위: %

구분	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	'15	
													전년대비 증감(%p)	전년대비 증감률(%)
전체	전체	11.8	12.8	13.3	12.8	12.8	12.1	12.1	11.4	9.7	9.2	7.8	-1.4	-15.2
	중학생	8.0	7.7	9.1	8.0	8.3	8.0	8.1	7.2	5.5	4.7	3.3	-1.4	-29.8
	고등학생	18.3	18.7	18.1	17.8	17.5	16.2	16.1	15.4	13.8	13.5	11.7	-1.8	-13.3
남학생	전체	14.3	16.0	17.4	16.8	17.4	16.6	17.2	16.3	14.4	14.0	11.9	-2.1	-15.0
	중학생	9.6	9.3	11.3	10.3	11.1	10.6	11.0	9.8	7.9	6.8	4.8	-2.0	-29.4
	고등학생	22.4	23.8	24.3	23.8	23.9	22.5	23.1	22.4	20.7	20.8	18.3	-2.5	-12.0
여학생	전체	8.9	9.2	8.8	8.2	7.6	7.1	6.5	5.9	4.6	4.0	3.2	-0.8	-20.0
	중학생	6.3	5.9	6.6	5.4	5.1	5.1	4.8	4.3	2.8	2.3	1.7	-0.6	-26.1
	고등학생	13.5	13.0	11.3	11.1	10.2	9.0	8.3	7.5	6.3	5.6	4.5	-1.1	-19.6

※ 청소년 현재 흡연율: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

※ 조사대상자: '05년 중1~고2, '06년 이후 중1~고3

※ 전년대비 증감률: (당해연도 흡연율-전년도 흡연율)/전년도 흡연율*100

□ 금연시도율

- 현재흡연자 10명 중 7명(71.7%)이 최근 1년 내 금연을 시도하였으며, 금연시도 이유는 '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서'(30.3%), '흡연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'(25.8%), '담뱃값이 너무 비싸서'(15.9%) 순으로 나타났다.
- '담뱃값이 너무 비싸서'는 '14년 6.1%에서 '15년 15.9%로 증가하여, 가격 인상에 청소년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.

□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

- '15년 남학생 전자담배 사용률은 6.2%로, 전년대비 1.9%p 감소했으며, 감소율은 23.5%이었다.
 - 여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1.5%이며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.
-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자 중 80.8%가 전자담배와 일반담배(궐련)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.
- 또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로 '호기심'(22.9%), '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 같아서'(18.9%), '맛 또는 향이 좋아서'(18.9%) 등의 항목을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.
 - *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3.1%, 실내에서도 피울 수 있어서 10.7%, 담배냄새가 나지 않아서 7.5%, 쉽게 구할 수 있어서 1.5% 등
- 전자담배 사용은 '14년에 증가하였다가 '15년에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, 일반담배(궐련)와 중복사용이 많다는 점에서 청소년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 -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맛과 향 때문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향후 신종담배 시장 확대를 고려할 때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.

< 전자담배 사용률 >

단위: %

구분		'11	'12	'13	'14		'15	
							전년대비 증감(%p)	전년대비 증감률(%)
전자담배 현재 사용률	전체	4.7	3.7	3.0	5.0	4.0	-1.0	-20.0
	남학생	7.3	5.8	4.7	8.1	6.2	-1.9	-23.5
	여학생	1.7	1.5	1.1	1.5	1.5	0.0	0.0
전자담배 사용자의 일반담배 동시 사용률	전체	76.4	74.8	74.0	77.5	80.8	3.3	4.3

※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: 최근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

※ 전년대비 증감률: (당해연도 사용률-전년도 사용률)/전년도 사용률*100

□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

○ 가정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9.0%로, '14년 대비 4.8%p 감소하여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었으며, 14.2%의 감소율을 보였다.

○ 40% 수준('06-'11년)이던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지속적 감소 추세로, '12년 이후 금연캠페인, 금연구역 확대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간접흡연 위해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.

- * '12년부터 공공기관, 음식점·PC방 등 금연구역을 확대하고, 버스 승강장·광장 등은 지자체별로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
- * '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' 슬로건으로 금연캠페인 추진

<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>

단위: %

구분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	'15	
											전년대비 증감(%p)	전년대비 증감률(%)
전체	40.3	46.9	46.8	41.2	40.8	39.6	32.9	30.7	33.8	29.0	-4.8	-14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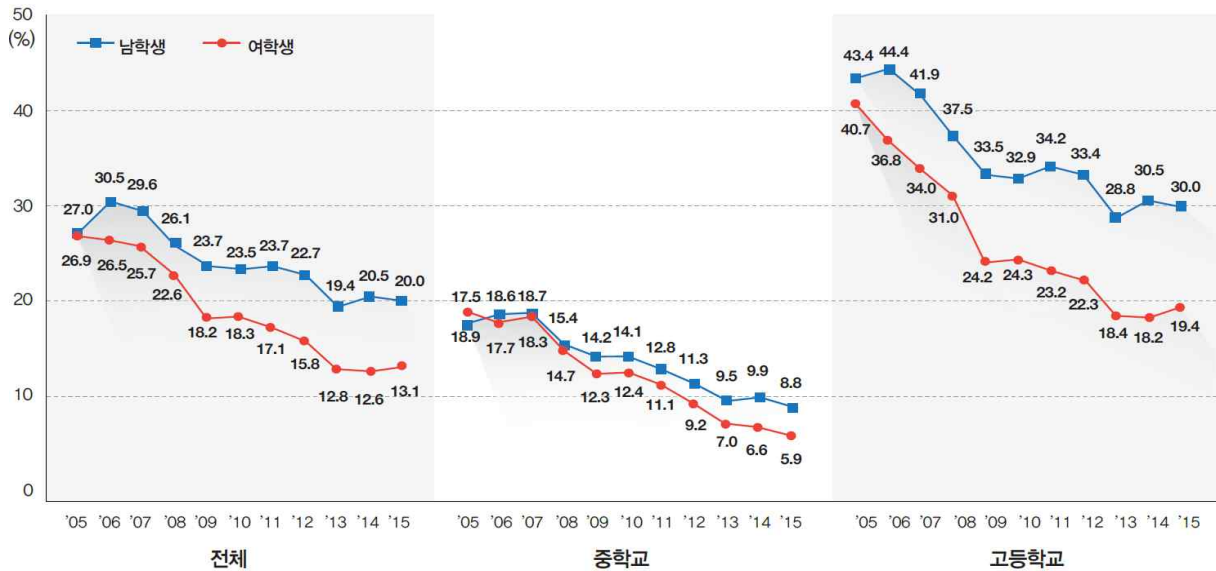
※ 주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: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(가족이나 손님 등)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는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

※ 전년대비 증감률: (당해연도 간접흡연 노출률-전년도 간접흡연 노출률)/전년도 간접흡연 노출률*100

□ 음주 지표

- 남학생 5명 중 1명(20.0%), 여학생 8명 중 1명(13.1%)이 한달 내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었으며,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.

< 현재음주율 추이 >



※현재음주율: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
※조사대상자: '05년 중1~고2, '06년 이후 중1~고3

-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학생은 5.2%로,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, 특히 중학생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.

<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학생의 비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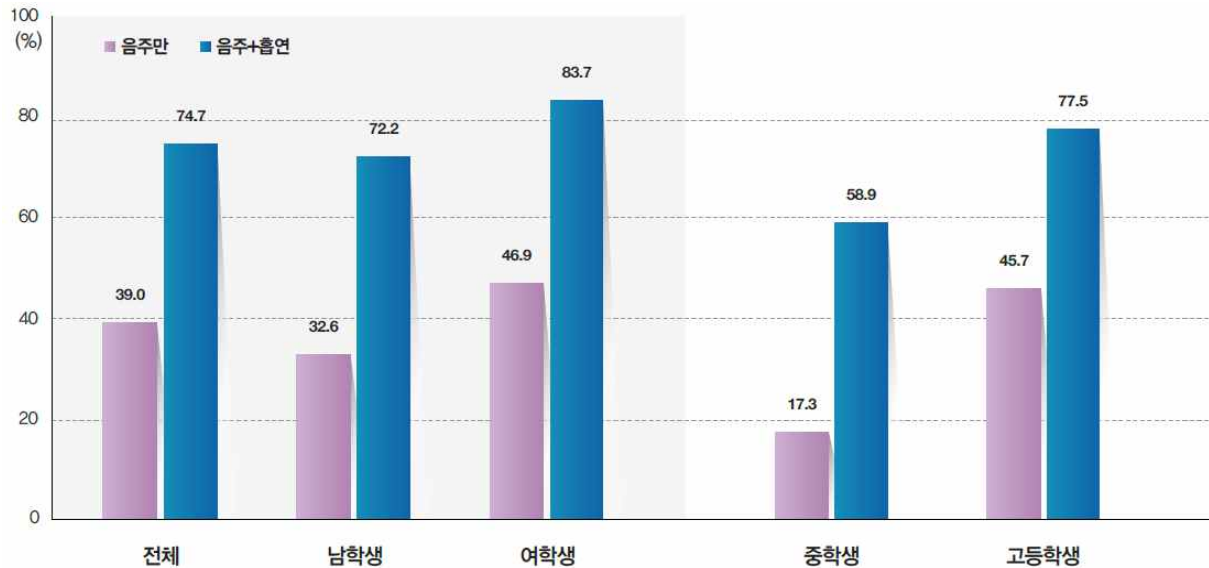
단위: %

구분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	
												전년대비 증감(%)	전년대비 증감률(%)
전체	9.0	9.9	10.0	8.8	8.4	7.9	7.8	7.6	6.2	6.1	5.2	-0.9	-14.8
중학생	5.3	5.1	5.7	4.4	4.2	4.2	3.9	3.6	2.6	2.3	1.7	-0.6	-26.1
고등학생	15.5	15.5	14.7	13.5	12.6	11.7	11.7	11.5	9.6	9.7	8.4	-1.3	-13.4

※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학생: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고,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학생
※조사대상자: '05년 중1~고2, '06년 이후 중1~고3
※전년대비 증감률: (당해연도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비율-전년도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비율)/전년도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비율 *100

-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학생은 음주만 하는 학생에 비해 위험음주율이 더 높았다.

<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학생의 위험음주율, 2015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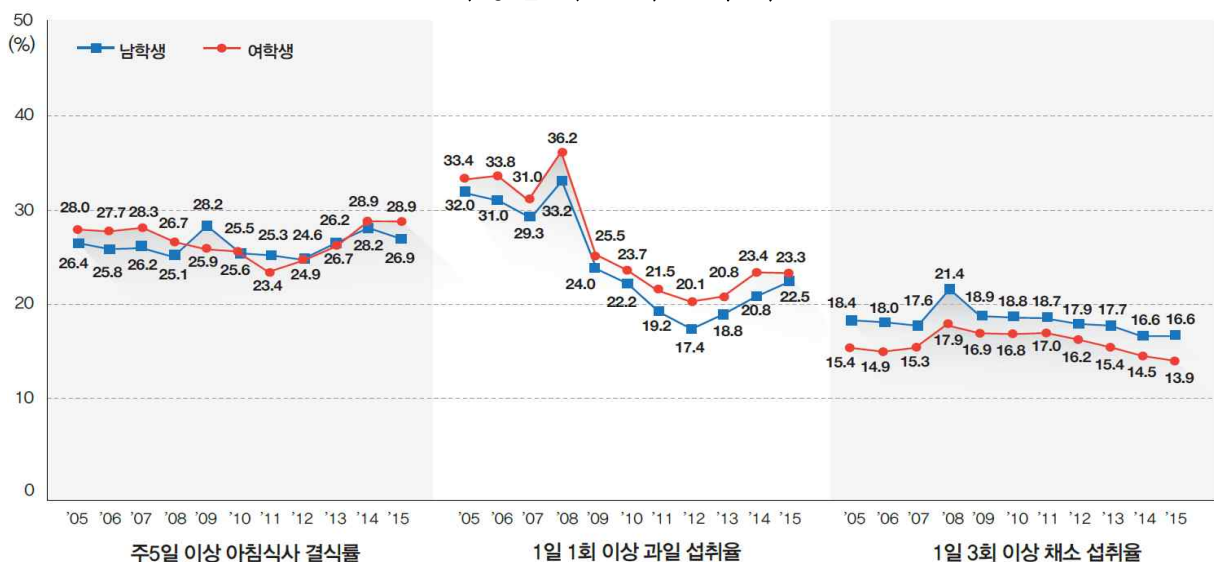


※위험음주율: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(남자: 소주 5잔 이상, 여자: 소주 3잔 이상)인 사람의 비율

□ 식생활 지표

- 아침식사 결식 학생은 10명 중 3명(27.9%)이며, 1일 1회 이상 과일(22.9%), 1일 3회 이상 채소(15.3%) 섭취는 낮은 수준이었다.

< 식생활 주요지표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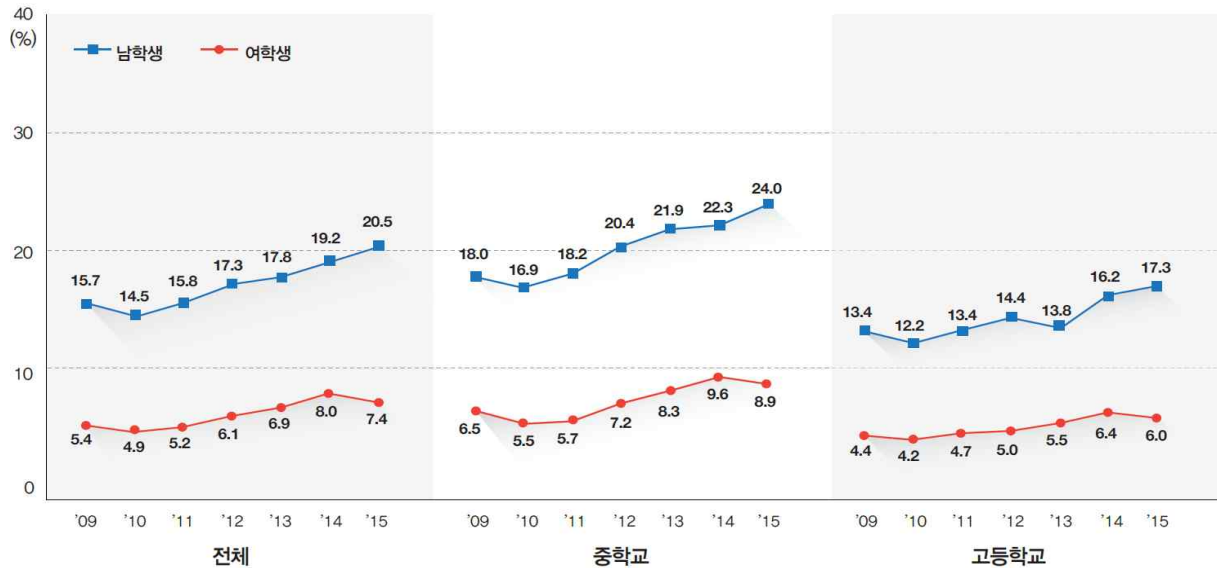


※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: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사람의 비율
 ※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: 최근 7일 동안 1일 1회 이상 과일(과일쥬스 제외)을 먹은 사람의 비율
 ※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: 최근 7일 동안 1일 3회 이상 채소(반찬·김치 제외)를 먹은 사람의 비율
 ※조사대상자: '05년 중1~고2, '06년 이후 중1~고3

□ 신체활동 지표

- 신체활동 실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, 특히 여학생에서 낮았다.

<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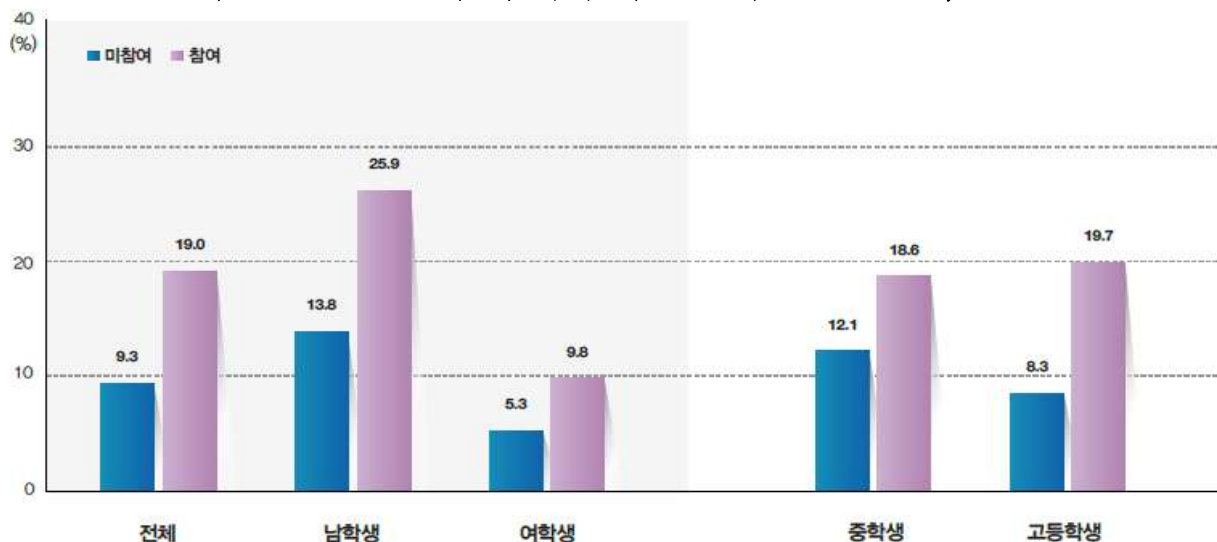


※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: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,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

- 학교 스포츠활동팀에 규칙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미참여 학생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약 2배 높았다.

* 학교스포츠클럽(학교체육진흥법 제2조, '13년 시행)은 '1인 1운동의 생활화로 학생 건강 체력 증진'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'15년 4,500개교에서 '16년 5,000개교에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

< 학교 스포츠활동팀 참여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율, 2015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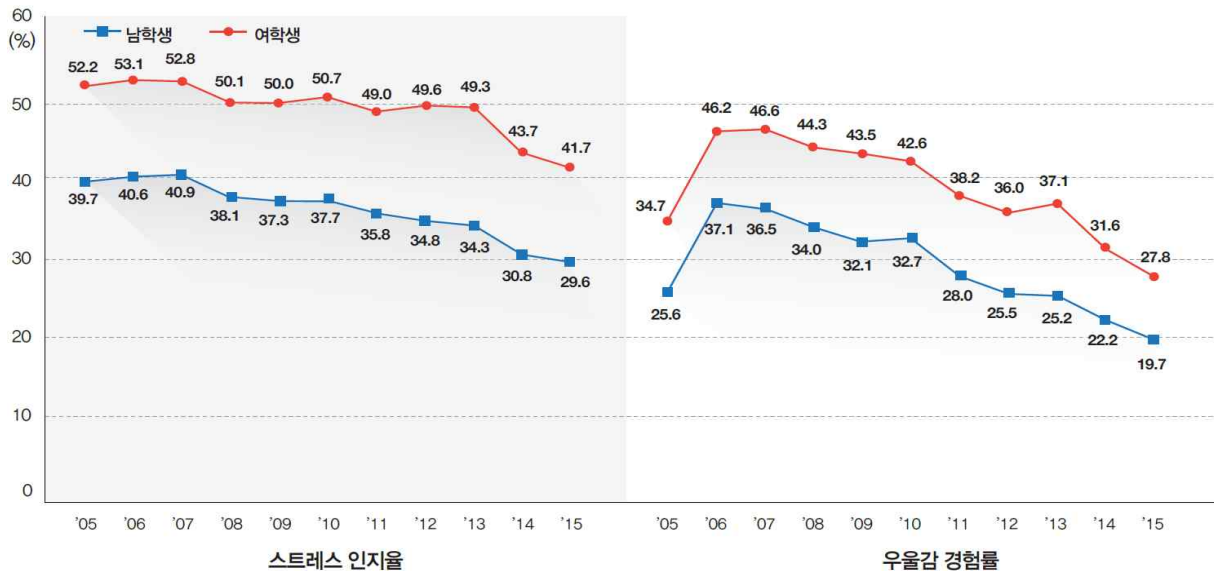
※ 학교 스포츠활동팀 미참여: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참여한 스포츠활동팀이 1개도 없는 학생

※ 신체활동 실천율: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,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

□ 정신건강, 손씻기 지표

- 스트레스 인지, 우울감 경험은 감소경향이며,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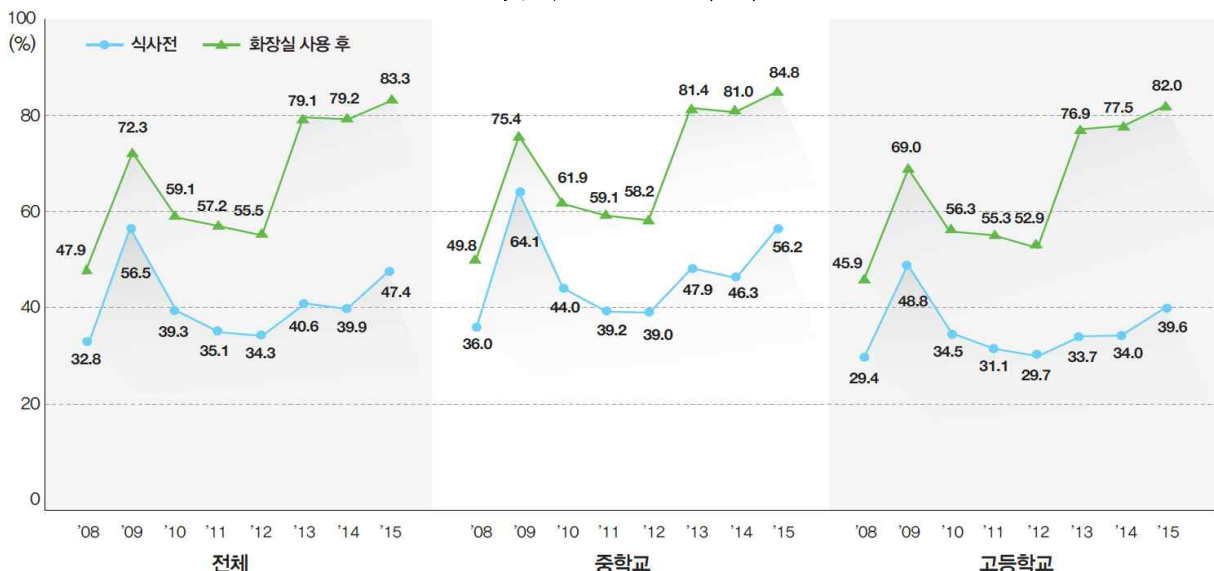
< 정신건강 주요지표 추이 >



※스트레스 인지율: 평상시 스트레스를 '대단히 많이' 또는 '많이'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
 ※우울감 경험률: 최근 12개월 동안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
 ※조사대상자: '05년 중1~고2, '06년 이후 중1~고3

- 손씻기 실천율은 식사 전 47.4%, 화장실 사용 후는 83.3%로 '14년 대비 각각 7.5%p(증가율 18.8%), 4.1%p(증가율 5.2%) 증가하였다.

< 손씻기 실천율 추이 >



※학교에서 식사 전 비누이용 손씻기 실천율: 최근 7일 동안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를 '항상' 또는 '대부분' 한 사람의 비율
 ※학교에서 화장실 사용 후 비누이용 손씻기 실천율: 최근 7일 동안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를 '항상' 또는 '대부분' 한 사람의 비율

□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'15년 조사 결과에 대해,

○ “청소년 흡연을 감소 등 지표의 개선은 학교내 건강증진교육 강화, 담뱃값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”며

- “최근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 의무화 및 흡연학생 금연지원(‘12년~, 교육부), PC방 금연구역 전면 시행(‘13년), 담뱃값 인상(‘15.1월), 흡연 예방교육 예산지원 및 캠페인* 강화(‘15.3월~)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

* 청소년 금연캠페인(‘15~) : 웹툰, 웹드라마, 바이럴영상 등 온라인 및 SNS 방식 대폭 강화

○ 특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“1월부터 오른 담뱃값이 더 어린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”며

- “가격인상이 당분간 진입장벽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, 내년도 경고 그림 도입(‘16.12월 예정)은 물론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, 가향 규제 등 비가격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말했다.

□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7일 ‘제11차(2015년)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발표회’를 개최하고, 통계집은 ‘15년 12월에 발간하여 홈페이지(<http://yhs.cdc.go.kr>)에 공개할 예정이다.

<첨부>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~2015년 주요 결과